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22일 (음력 1월 18일) 금요일

광주 문화예술,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市, 에향광주 정체성 살린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 개발

지역 예술가·기획자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광주시가 광주민의 차별화된 예술관광 브랜드 상품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관광도시 광주' 추진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에향광주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예술여행도시 광주'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다.



광주·전남 대학생 5·18 망언자 처벌 퍼포먼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교명 변경 '주춤'...올해 딱 한곳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 교명(校名) 변경 바람이 눈에 띄게 찾아들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신학기에 맞춰 교명이 변경되는 곳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광주 송의고 단 한 곳 뿐이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송의고는 유형 전환과 재구조화를 통한 특성화고 전환을 계기로 학교 이름을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했다.

광주에서는 2013년과 2014년 4곳의 학교가 명칭을 바꾼 데 이어 2016년에는 백일초가 성진초로, 봉일전지정보고가 동일미래과

학교로, 호남삼육학교가 호남삼육중으로 변경했고, 택지개발에 따라 효천중학교가 신설됐다. 2017년에는 지원초가 지한초로, 월남유치원이 지한유치원으로, 광주경영고가 광주소프트웨어미스터리로, 삼육고가 호남삼육고로 교명을 바꿔 새롭게 출발했다.

전남은 2013~2014년 2년 새 12개 학교가 교명을 변경하는 등 5~6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교명 갈아타기가 활발했으나, 지난해에는 학다리고가 공립 전환 1년만에 합병화 다리고로 전환했고, 장성실고가 장성하이테크고로 변경한 것이 전부였다.

김정환·조인호 기자

전남 가축시장 22일 재개장...휴장 21일만

"개장 전후 가축질병 안전 기할 것"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1월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했던 가축시장을 22일 일제히 재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로 지난 1일 가축시장 임시 휴장조치를 내린지 21일 만이다.

그동안 재개장을 위해 주변 도로의 상

시 소독과 출입자 및 차량소독시설의 점검, 가축계류 시설의 세척까지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의 사전 차단에 위한 집중 소독도 마친 상태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번 가축시장 재개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종식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개장 전후 가축질병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앞으로도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편향

손학규비례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 유력당원자인 황교안 후보를 겨냥 '제1야당 대표 후보가 당선전부터 민주주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극우·극단주의에 경도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새로운 후보가 될 사람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당장 정치적이득에 눈멀어 우리 정치 시계를 극단주의·반민주 시계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유력한 황 후보의 행보에 대한 걱정 "이 코디"며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분이 극우·극단주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이 분이 당을 이끌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갈지 지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서은홍 기자

사람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